

## 6/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보도자료

국가안보실은 오늘 6.2(일) 오후 14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우리에게 대한 복합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이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중 국가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